

제목	국문	한국인 자궁경부암의 복합 위험도 추정에 관한 연구			
	영문	Estimation of joint risks associated with uterine cervical cancer in Korea			
저자 및 소속	국문	윤하정, 신애선, 박수경 ¹ , 박노현 ² , 송용상 ² , 강순범 ² , 이효표 ² , 유근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¹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²			
	영문	Hachung Yoon, Aesun Shin, Sue Kyung Park ¹ , Noh Hyun Park ² , Yong Sang Song ² , Soon Beom Kang ² , Hyo Pyo Lee ² , Keun-Young Yoo <i>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¹,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²,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³</i>			
분야	역학 [연구방법론]	발표자	윤하정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목적</p> <p>자궁경부암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두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역학적 연구는 매우 드물어서, 자궁경부암의 병인론은 물론 고위험군을 정의하는 데에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뿐만아니라, 암은 여러 위험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에 관한 연구보고는 거의 없다.</p> <p>2. 방법</p> <p>1992 년 9 월부터 1995 년 5 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내원한 여성 중 20 세 이상이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1,231 명 중, 자궁세포진 검사에서 상피내종양 (침윤성 상피세포성 자궁경부암 포함)으로 확진된 자를 환자군으로 정의하였고, 자궁경부의 상피내 종양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여성을 대조군으로 정의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서를 이용하여 훈련된 간호사 1 인이 독립된 방에서 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과 직접면접에 의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연령분포 차이 때문에 60 세 이상인 여성을 분석단계에서 제외하고, 204 명의 환자군과 834 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중회귀로짓 모델을 이용하여 각 위험 요인의 자궁경부암에 관한 복합 위험도를 추정하였다.</p> <p>3. 결과</p> <p>단변수 분석 및 최적 모델을 구축한 결과, 나이와 배우자의 학력으로 보정한 모델에서, 자궁경부암의 가족력이 있는 여성 (OR=2.1, 95% CI=1.2-3.9), 사별, 이혼, 별거, 재혼 등의 이유로 초혼한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 (OR=2.8, 95% CI=1.7-4.6), 만삭 분만 횟수가 많은 여성(분만수가 3 회 이상인 여성 vs 분만 경험이 없는 여성 OR=6.5, 95% CI 1.4-29.9)에게서 자궁경부암의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반면에, 첫 성교 연령이 많을수록 (25 세 이상 vs 19 세 미만 OR=0.4, 95% CI=0.2-0.6), 남편이 포경수술 받은 여성(OR=0.7, 95% CI=0.5-1.0)에서는 위험도가 감소하였다. 복합위험도는 가족중에 자궁경부암으로 진단 받은 사람이 있고, 첫 성교경험이 19 세 미만이며, 배우자는 포경수술을 받지 않았고, 세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초혼한 배우자와 살고 있지 않은 여성군에서 가장 높았으며 (OR=39.19, 95%CI=5.91-259.86), 자궁경부암 가족력이 없고, 첫 성교경험이 25 세 이상이고, 초혼한 배우자와 계속 결혼상태에 있으며, 배우자는 포경수술을 받았고,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군에서 가장 낮았다 (OR=0.25, 95% IC=0.13-0.48).</p> <p>4. 고찰</p>					

본 연구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각 위험요인의 조합별 복합위험도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암은 각각의 관련요인의 포괄적 작용의 영향 하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암의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적 연구는 복합위험도로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또한 다른 질환에도 응용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